

## 마태오 복음서 25장

### 열 처녀의 비유

- 1 “그때에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sup>1)</sup>
- 2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 3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 4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 5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 6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 7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 8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 9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 10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sup>2)</sup>
- 11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 12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 13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1) 이 비유는 종들의 못된 행실이 아니라, 신랑이 도착하였음을 알리는 외침이 나올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열 처녀가 일부는 ‘슬기롭다’는 말은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고, 일부는 ‘어리석다’라는 말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이다.<sup>3)</sup>

2) 들불은 깨어 있음을 상징하고, 기름은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삶을 상징한다.

- 1)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에 따르면, 밤에 신랑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맞으러 오면 신부의 친구들이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여 혼인 잔치에 참여하였다. 이때 어두운 길을 밝힐 등불이 필요했다.
- 2) 묵시 19,7-9 :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자. 어린양의 혼인날이 되어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다. 그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는 특권을 받았다.” 고운 아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천사가 또 이어서, “이 말씀은 하느님의 참된 말씀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 3)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46쪽, 각주 1.  
마태 7,24-27 :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 3)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음을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랑과 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각자 준비한 기름 곧 개인의 행실에 따른 것이다.
- 4)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듯, 주님의 재림은 분명하지만,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늘 깨어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삶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 탈렌트의 비유(루카 19,11-27)

- 14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 15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sup>4)</sup>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 16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다.
- 17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두 탈렌트를 더 벌었다.
- 18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 19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 20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21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 22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두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23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 24 그런데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 25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 26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 27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4) “다섯 탈렌트”는 일꾼이 받는 하루 품삯의 삼만 오천 배로써 종에게는 그야말로 엄청난 액수이다(위 147쪽, 각주 10 참조)

- 28 저자에게서 그 한 талан트를 빼앗아 열 талан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29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30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 1) 이 비유에서의 충실성은 단순히 늦게 오는 주인을 맞이할 채비를 갖추고 있거나 주인이 올 때까지 계속 처신을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비유에서 종들이 해야 할 바는 저마다 능력에 따라 맡겨진 талан트를 가지고 열심히 결실을 맺는 일이다.<sup>5)</sup>
- 2) 주님께서서는 주신 능력만큼 그 결실도 요구하신다. 각자 받은 능력에 따라 말씀대로 생활하여 결실을 돌려 드려야 한다. 주의할 것은 다섯 талан트와 두 талан트는 비교해서는 안 된다. 각자 받은 능력대로 정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sup>6)</sup>
- 3) 한 талан트를 받은 종은 받은 능력을 활용하지 않았다. 낭비하지도 않았지만, 이익을 남기지도 않았다. 곧 일하는 수고와 일할 때 생기는 어려움을 회피하였다. 한 마디로 게으른 종이였다. 주인은 이 게으름을 심판하신다.
- 4) талан트 비유의 핵심은 충실한 삶을 살라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매사에 충실해야 한다. 더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평불만을 해서도 안 된다. 작은 일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는 한 талан트 받은 종과 같이 악하고 게을러서는 안 된다.

### 최후의 심판

- 31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sup>7)</sup>  
 32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릴 것이다.<sup>8)</sup>  
 33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5) 위, 146쪽, 각주 4.

6) 2코린 5,9-10 : 그러므로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값을 받게 됩니다.

7) 유다 1,14-15 : 저들을 두고 아담의 칠 대손 에녹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당신의 거룩한 이들과 함께 오시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저마다 불경스럽게 저지른 모든 행실에 따라, 불경한 죄인들이 당신을 거슬러 지껄인 모든 무엄한 말에 따라 각자에게 벌을 내리신다.”

묵시 3,21 : 승리하는 사람은, 내가 승리한 뒤에 내 아버지의 어좌에 그분과 함께 앉은 것처럼, 내 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해 주겠다.

8) 에제 34,17 : ‘너희 나의 양 떼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양과 양 사이, 숫양과 숫염소 사이의 시비를 가리겠다.

- 34 그때에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라.’<sup>9)</sup>
- 35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sup>10)</sup>
- 36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 37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 38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들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 39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 40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sup>11)</sup>
- 41 그때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sup>12)</sup>
- 42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 43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 44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 45 그때에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
- 46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

9) 에페 1,4 :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10) 욥 31,32 : — 나는 언제나 길손에게 문을 열어 놓아 나그네가 밖에서 밤을 새운 일이 없다네.— 이사 58,7 :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 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11) 잠언 19,17 : 가난한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주님께 꾸어 드리는 이 그분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신다.

12) 유다 1,7 : 그들과 같은 식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변태적인 욕욕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고을들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묵시 20,10 : 그들을 속이던 악마는 불과 유향 못에 던져졌는데,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욥 22,6-9 : 자네가 까닭 없이 형제들에게 담보를 강요하고 헐벗은 이들의 옷을 벗겼기 때문일세. 자네는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거절하였네. 세상은 주먹이 센 자에게 속하고 특권을 누리는 자가 차지하지.

는 곳으로 갈 것이다.”<sup>13)</sup>

- 1) 양과 염소는 풀밭에 함께 자란다. 그러나 저녁때에는 가끔 갈라놓기도 한다. 팔레스티나 땅은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심한데, 양은 추위를 잘 견디지만 염소는 그러하지 못하여, 저녁에 염소들을 한데 모아 추위를 피하게 해 주어야 한다.<sup>14)</sup>
- 2) 세상에는 말씀을 거역한 염소 같은 사람들과 말씀을 실천한 양 같은 사람들이 섞여 있다. 곧 선인과 악인은 공존한다. 심판 때에 그들을 갈라 세울 것이다.
- 3) 가장 작은 이들은 곤경 중에 있는 이들을 당신과 동일시하신다.
- 4) 이 비유는 최후의 심판을 예언적으로 서술한 말씀이다.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임금처럼 “영광에 싸여” 내려오시어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 곧 그들이 곤궁에 처한 이들에게 자비와 선행을 베풀었는지에 따라 그들의 행실을 평가하시고 상이나 벌을 내리신다.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그러한 행동들이 그들은 알지 못한 깊은 뜻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가련한 이를 당신의 형제로 여기시고 당신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시는 것이다.<sup>15)</sup>
- 5) 신앙인들은 여러 가지 모습 곧 곤경 중에 있는 이들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곧 주님에게 베푸는 것이요, 그들을 외면한 것은 바로 주님을 외면한 것이 된다.
- 6) 심판의 기준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미사에 충실히 했느냐가 아니라, 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느냐이다. 기도 열심히 하고 미사에 충실한 신앙인은 사랑의 실천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

13) 다니 12.6 : 또 땅 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14) 앞 148쪽, 각주 16.

15) 위, 147-148쪽, 각주 15.